

한국금융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 개최사 김홍범 (한국금융학회 회장)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전, ‘어떤 사회현상도 측정할 수 있어야 중요하다’고 봤던 당시 사회과학계의 풍토를 개탄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과학도가 측정 가능한 현상만을 파고 들 때 정작 중요한 사회현상의 정성적 측면은 간과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무엇이든 측정할 수 있는 자연과학에서라면 이런 풍토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사회과학계에 이미 널리 퍼진 자연과학 방법론 만능주의를 경계한 이 학자는 다름 아닌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였습니다. 1974년 12월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념강연에서였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지식의 위선(The Pretence of Knowledge)’이었습니다.

2014년 오늘, 우리나라 정부와 정책당국은 각종 문제에 대해 엄청난 분량의 대책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조치가 단기적이요 정량적입니다. 수치로 나타내기가 곤란하거나 단기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기 힘든 난제는 당국의 현안 목록에서 아예 빠져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KB 사태는 낙하산 인사로 만신창이가 된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금융위가 바로 작년 TF까지 만들어가며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공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모피아 문제는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피아 문제는 정부의 현안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히, 또 다른 ‘지식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나라 금융부문에서는 대형 사건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동양그룹 사태, 올해 초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태, KB금융 사태와 같은 각종 ‘사태’가 넘쳐납니다. 모두 금융의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아 불거졌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손쉬운 물음과 대책의 정량적 제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기본을 애써 비껴가며 위기를 재촉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회는 추계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금융의 기본에 관한 세 편의 논문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들은 학회가 위촉한 세 분의 훌륭한 학자들이 지난 수개월간 각기 독자적으로 진행하신 연구의 결과물로, 모피아의 문제, 금융회사 수익성의 문제와 금융의 윤리 및 신뢰 문제를 각각 천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은 학회 부회장이신 전남대 양채열 교수께서 도맡아 기획·총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진행을 위해 학계는 물론 법조계, 언론계, 업계와 연구기관의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고, 축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서울대학교의 이지순 교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또한, 본 학회의 역대 회장님과 회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금융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후원해주신 한국경제신문에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자리가 금융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사회가 올바른 물음을 묻기 시작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을 짚는 귀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